



『 고작해야 364일 』 독후활동지



학년 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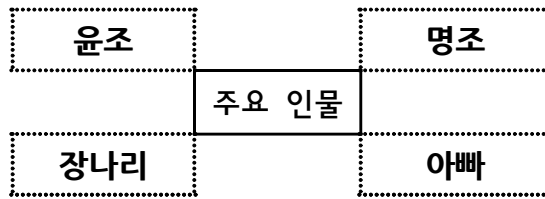
1. 책을 읽은 후 별점과 한 줄 소감을 남겨주세요.

별점	☆ ☆ ☆ ☆ ☆
이유	

2. 이 책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윤조와 명조, 아빠와 장나리입니다. 그들의 성격이나 특징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윤조의 성격이나 특징〉

〈명조의 성격이나 특징〉



〈장나리의 성격이나 특징〉

〈아빠의 성격이나 특징〉

3. 윤조는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손자이고, 고작해야 명조보다 364일 먼저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세뱃돈도 많이 받고 장난감과 새 옷 등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합니다.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할머니는 너무 윤조만 챙기고 이빠하니 명조는 많이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나요?

나의 형제 관계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	
서운한 점 (서운한 게 없으면 감사한 점을 쓰기)	

4. 레고를 하다가 출발 시간을 놓쳐 스카우트 행사에 가지 못한 윤조에게 아빠는 “그놈의 레고, 또 갖고 놀기만 해! 겨우 그따위에 정신 빠져서 출발 시간 하나 똑똑히 모르잖아. 이게 말이 돼?”라고 화를 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다가 중요한 약속이나 할 일을 놓쳤던 경험이 있나요?

좋아하는 일	
중요한 일이나 약속을 놓쳐서 혼났던 일	
그때 들었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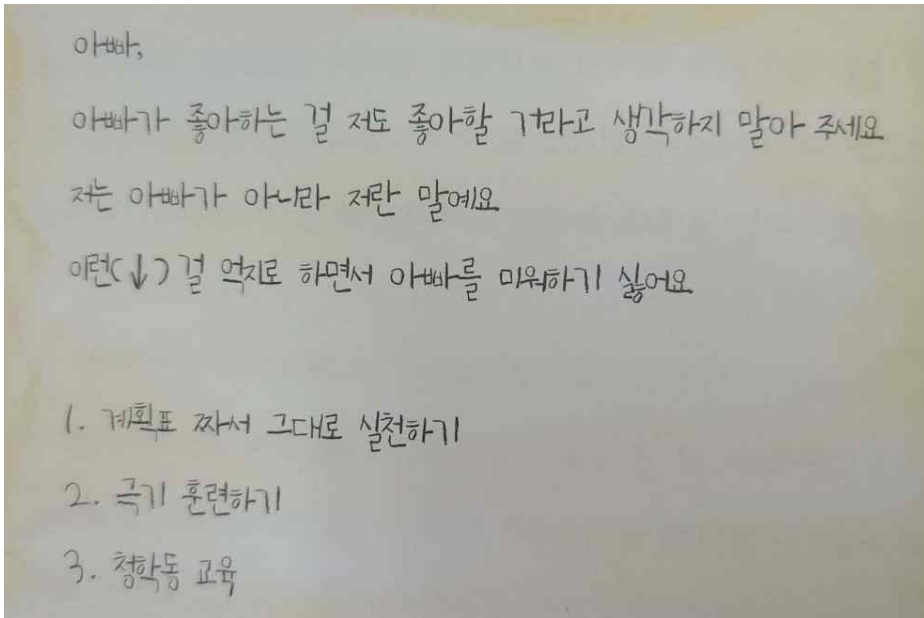
5. 활동적인 것을 싫어하고 앉아서 레고만 하는 윤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아빠는 윤조와 명조를 데리고 등산을 갑니다. 산에서 만난 어른들이 “어이구, 녀석들! 산을 아주 잘 타는구나.” 같은 말씀을 하니 몹시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글을 보면 명조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 생각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속상했던 적은 없나요? 있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는지 써 보세요.

확실히 아빠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빠답게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우리 기분이 팽이든 말든 어른들은 늘 어른이 아이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아이들이 야단맞을까 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걸 알거나 할까. 윤조와 나는 징징거리며 철없이 굴지는 않았다. 운동 신경이 그 정도는 아니다. 기분이 팽인 건 아빠가 아빠 생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였다. (51쪽)

언제	
어떤 일	
그때의 기분	

6. 장나리처럼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고 다닌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양쪽의 색깔이나 무늬가 다른 운동화를 상상해서 자유롭게 디자인해서 그려보세요.

7. 윤조는 그동안 말도 별로 하지 않고 아빠에게 묵묵히 반항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방 문에 쪽지를 붙여 놓습니다.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어요. 그 쪽지를 받은 아빠는 옆에 답장을 적어주면서 둘의 사이는 조금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말을 쪽지로 적어보세요. (답장을 써달라는 부탁도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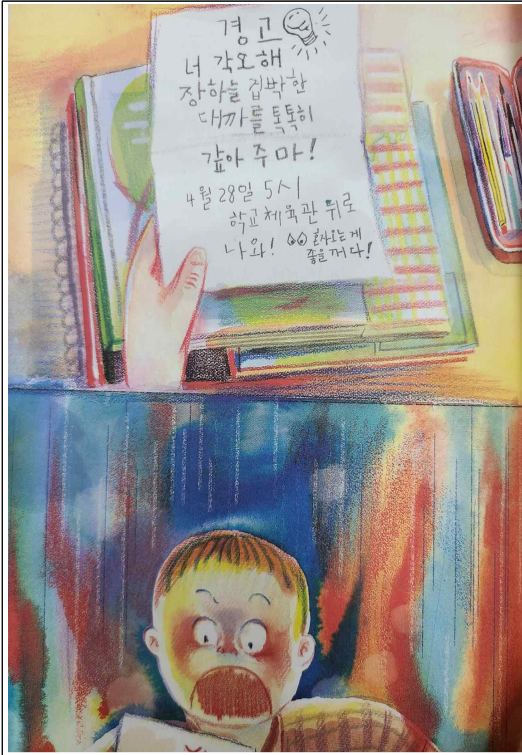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죠?

여러분도 부탁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음의 빈 칸에 이유와 함께 적어주세요.



8. 장하늘이 명조의 그림 공책을 뺏고 귀찮게 하는 모습을 본 윤조는 거친 남학생이 괴롭히는 줄 알고 "너, 한 번만 더 내 동생 건드리면 코를 부숴 버린다잉?" 라고 하며 공책을 되찾아줍니다. 점점 일이 커져서 장하늘의 쌍둥이인 장나리가 윤조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가요?



<생각해본 해결 방법과 이유>

9. 명조는 윤조와 364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동생이라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걸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쌍둥이인 장나리는 고작 3분 차이로 동생이 되어 버려서 억울해합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는 직접 겪어봐야 알겠지만 형제 자매간에 나이 차이가 나는 게 좋은지, 쌍둥이로 나이가 같은 게 좋은지를 대해 생각해 보고 장단점을 적어보세요.

	쌍둥이	나이 차이가 나는 것
장점		
단점		

10.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인물 또는 가장 마음이 쓰이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 봅시다.



비상업적 용도로 활동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진향